

제 59 차 이 사 회

- ◆ 일 시 : 2018년 10월 23일 (화) 10시 00분
- ◆ 장 소 : 서울시립교향악단 4층 챔버연습실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제59차 이사회 의사록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일시	2018.10.23 (화) 10:00	장소	서울시립교향악단 4층 챔버연습실
재적이사	12명(함00, 강00, 서00, 마00, 강00, 고00, 광00, 문00, 박00, 박00, 정00, 허00 이사)		
출석이사 및 감사	이사: 10명(함00, 강00, 서00, 강00, 고00, 광00, 문00, 박00, 박00, 허00 이사) 감사: 공석		
기록자	기획협력팀 송00		

2018년 10월 23일

(개의)

[제59차 이사회 보고안건]

- 사회 홍00 경영본부장
 1. 보고안건 '제58차 이사회 결과보고'
 2. 의결안건 직제규정 중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3. 의결안건 여비규정 중 개정(안)
 4. 의결안건 부지휘자 계약 체결(안)
 5. 의결안건 공연기획자문역 계약 체결(안)
 6. 의결안건 임원추천위원회 의원 추천(안)

[제178호 직제규정 중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토의]

- 홍00 본부장

제58차 이사회에서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팀명이 변경되었음.

또한 운영규정에서 음악감독추천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협력팀장으로, 이사회 운영규정의 의안설명은 경영본부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이사장 함00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리며,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제179호 여비규정 중 개정(안) 토의]

○ 이사 문00

개정(안)의 가.나, 다, 라가 공무원 규정인데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 이사 서00

물가 등을 고려해서 구분한 것으로 판단됨, 물가상승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홍00 본부장

기존에 다 등급으로 분류되어있는 시드니의 경우, 현지 출장비 고려 시 “가”등급 적용이 현실적이나 “다”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실제 운영에 애로가 있음.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 관리규정에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사장 함00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음

[제180호 부지휘자 계약 체결(안) 토의]

○ 이사 문00

부지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인가?

○ 홍00 본부장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했음

○ 이사 강00

부지휘자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 한 사람이 진행 할 수 있는 업무인가?

○ 대표이사 강00

원래 Associate와 Assistant를 같이 채용하려고 오디션을 진행했으나, Assistant, 특히 한국 지휘자 중 상근이 가능하며 재단의 양성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분을 찾았으나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음. 내년 상반기에 다시 채용을 추진하여 충원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상반기 중 음악감독, 수석객원지휘자 두 분, 수석 부지휘자, 부지휘자로 예술부문 리더십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이사 강00

그렇게 리더십체계가 구축되면 업무들이 분배될 수 있는 것인가?

○ 대표이사 강00

수석부지휘자는 정기공연 외 교육, 시민공연 등에 있어서의 소통, 정기공연 중 음악감독 부재 시 및 위기관리측면의 역할을 수행함. 어시스턴트는 시민소통과 재단에서 양성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Associate와 Assistant를 부지휘자, 조지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어시스턴트가 채용되면 수석부지휘자, 부지휘자로 구분하려고 함

○ 이사 박00

수석부지휘자의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가?

○ 대표이사 강00

공연사업팀에 부지휘자 담당자가 있음. 담당자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오디션 이후부터 계약, 향후 기획 관련된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음

○ 이사 박00

재단이 요청하는 교육, 야외, 시민, 외부출연 공연수행 등의 구체적인 달성 수준을 논의 해야 하지 않는가?

○ 대표이사 강00

계약서 상에서는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반영할 예정임

○ 이사 박00

부지휘자 계약과정에서도 본인이 달성 가능한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계약기간 종료 후 기대수준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사 서00

연봉수준은 적절한가?

○ 대표이사 강00

최수열 지휘자가 서울시향 환류의 좋은 예로 설명할 수 있음. 처음에 조지휘자로 시작해서 부지휘자로 승급하고, 현재 타 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된 성과를 달성하였음. 지금 부지휘자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직접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수준으로 연봉을 협의했고, 대신 상근의지를 보여 임차주택 제공 조건을 추가하였음

○ 이사 박00

실제적으로 기대가 되는 지휘자로 보임, 잘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사 박OO

임차주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백OO 공연사업팀장

이번에 채용될 부지휘자 월슨 응은 상근지휘자로 함께 할 예정임, 재단 부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시향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열 부지휘자 역시 상근으로 활동했었고, 외국인 부지휘자는 이번에 처음 적용될 예정임. 보통 부지휘자는 재단의 정기공연 및 야외공연, 강변음악회 등에서 지휘를 하는데, 월슨 응은 강변음악회, 서울시의 삼일절 백주년기념음악회, 전국체전 기념음악회 등 대규모 편성 음악회를 지휘할 예정임. 또한 논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사업 중 유아 대상 공연 기획을 추진중에 있음. 공연 구성, 횟수, 커리큘럼 구성 등을 논의하여 운영 예정임. 임차주택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임차주택 운영내규에 있는 20평대 규모 규격을 준수하여 재단 인근에 있어 관리가 용이한 주택을 선정할 예정임

○ 이사 박OO

주거형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것인가?

○ 백OO 공연사업팀장

월슨 응의 경우 홍콩거주지에서 국내로 거주지를 옮기므로 실거주용 오피스텔 임차를 준비중에 있음

○ 홍OO 본부장

내규상 20평대지만,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10평 전후이므로 실제적인 10평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세를 우선하되 월세도 고려하고 있음

○ 이사 박OO

경험적으로 많은 담당업무가 과업으로 지시되므로, 계약 상 선택과 집중을 해야 위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백OO 공연사업팀장

보고자료에는 담당업무가 폭넓게 설명되어 있으나, 부지휘자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계획임

○ 이사 고OO

한국에 상근하여 일년 중 절반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세무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되어 소득세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는가?

○ 이사장 함00

해당 사항을 부지휘자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 이사 박00

매니지먼트사가 있는가?

○ 백00 공연사업팀장

현재 매니지먼트사는 없으나, 사전논의 시 상근활동시의 연봉과 기존 비상근의 조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음

○ 이사 고00

한국인 상근지휘자와 세부적인 거주자와 상이할 수 있고, 국내 상주기간을 세부적으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실제적인 적용 세율 등으로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백00 공연사업팀장

세금 관련 (안)의 자문을 받아 관련정보는 전달된 상태임

○ 이사 허00

연봉 고려시 세금이 과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 이사 강00

최초 계약 종료 전 재계약 여부가 사전에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 백00 공연사업팀장

부지휘자 평가시스템 마련 예정으로 사전에 보고될 수 있게 하겠음.

○ 이사 광00

연주자 입장에서 부지휘자 경험이 1회에 불과하므로, 현재 많은 것을 결정하기보다 일년 동안 부지휘자의 역량을 여러 가지 환경에서 경험해 본 후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이사 서00

첫 지휘는 언제인가?

○ 백00 공연사업팀장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 3월에 예정되어있음

○ 이사장 함00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원안가결하겠음

[제181호 공연기획자문역 계약 체결(안) 토의]

○ 이사 박OO

공연기획자문 역할에 단원과의 교감이 포함되어있는가? 자문역 역시 재단방향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합의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획협력팀장 송OO

공연기획자문역 선임 시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군을 검토했음. 위원회 구성시 단원 노조측에 요청하여 외부위원을 추천받아 위원에 포함하였음

○ 이사 서OO

어떤 후보를 검토했고, 이분의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선택하게 되었는지?

○ 기획협력팀장 송OO

후보군 구성 시 클래식 주요 시장인 유럽과 미주의 주요 오케스트라 기획사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공연기획자문역은 중장기 공연기획 외, 직원/단원 재교육 역시 중요한 역할이므로 공연기획에 대한 사전경험과 경력 뿐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단에 대한 열정으로 교육이 가능한 분인지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하였음

○ 대표이사 강OO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였음

○ 이사 박OO

공연기획자문역이 교육에 투입되는가? 어떤 계획의 전략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시는가?

○ 대표이사 강OO

재단의 법인화과정에서 예술과 경영의 분리구조가 정착되었고, 훌륭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교육기능이 부족하므로, 오케스트라 공연기획과 대표이사 경력, 예술행정 경험 및 솔로리스트와 지휘자들의 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시향의 기획역량 구비 및 내재화를 위한 적임자로 판단됨

또한 음악감독 선임 전 까지 자문 제공 및 시향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역할도 일정 부분 수행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레퍼런스 체크를 통한 검증도 병행하였음

○ 이사 문OO

선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기획협력팀장 송OO

공연기획자문역 선임위원회는 공연기획자문역 선임을 위해 별도로 구성된 기구로, 대표 이사를 비롯한 외부위원 네 분으로 구성되었음

○ 이사 강OO

솔로리스트들의 한국국적의 비중이 적다고 생각되어, 한국의 좋은 솔로리스트와 함께 연주를 추진하는 것이 의견으로 전달되었으면 함. 또한 상임작곡가의 경우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공연기획 시 다양한 의견들이 전달되고 충분히 논의되기를 희망함. 덧붙여, 아르스 노바의 마지막 공연은 시향의 정체성과 아르스 노바의 특별함이 상실되는 것으로 우려가 됨. 아르스 노바는 12년 동안 현대 레퍼토리를 충분히 형성해 왔으므로 정기공연 내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기를 희망함

○ 이사 박OO

공연기획자문역의 우리나라의 연주자나 시향의 정체성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최근 일년 연주의 경우 독일적인 레퍼토리가 많고 연주자도 독일 국적의 사람들이 비중있게 등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공연기획자문역의 관점이 그대로 수용되지 않도록 고려가 필요함

○ 대표이사 강OO

공연기획자문역이 예술적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은 아님. 조언을 하고 음악감독과 대표이사 가운데서 시향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함께 논의할 것임

○ 이사 박OO

대표이사의 역할이 중요함. 국내외 아티스트 선정 시 공연기획자문역이 의견을 제공할 경우, 자체 레퍼런스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함

○ 이사 서OO

아르스 노바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진행한건가?

○ 대표이사 강OO

아르스 노바에 대해 간단하게 홍보마케팅팀에서 정리해서 보고해주기 바람

○ 홍보마케팅팀장 양OO

아르스 노바는 현재까지 진은숙 작곡가가 상임작곡가 겸 아르스 노바 프로그래머로 역할 하였으나, 작년 말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았음. 상임작곡가의

역할과 기능, 기준 등이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대신 대표이사와 상의하여 아시아 초연 생황 협주곡, 한국 초연 플룻 협주곡 등 현대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를 기획함. 이후 현대음악 시리즈의 지속여부와 방식이 명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대음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이사 서OO

그렇다면 보도자료에 마지막 공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홍보마케팅팀장 양OO

마지막이라고 사용하지 않았음

○ 대표이사 강OO

재단은 폐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 발전적으로 내년에도 현대음악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한 패키지를 마련했고, 집중적인 시리즈는 현재 운영되지 않지만, 매 공연마다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 중임. 앞으로도 시향의 방식으로 현대음악에 접근할 것임.

다만 언론은 아르스 노바의 유무에 주목하여 자극적으로 제목이 나간 것으로 판단됨

○ 이사 박OO

이번에 캔디드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기획이었으나 언론보도가 미미했음

○ 이사 문OO

아르스 노바는 서울시향만의 고유 브랜드라면, 해당 브랜드를 지속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이사 서OO

공연기획자문역을 연 6회 방문으로 제한을 했는데, 과거 선례상 6회로 계약하고 그 이상을 진행한 적이 있는가? 필요성은 없는가?

○ 이사 박OO

예산이 중요한 변수로 판단됨

○ 기획협력팀장 송OO

기존에는 공연기획자문역이 연 6회 방문한 적이 있었고,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 전임자는 3회 방문을 했었으나 중장기 공연 외 교육관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6회로 계약을 진행한 것임

○ 이사 서OO

방문횟수가 적다고 판단됨

○ 대표이사 강00

공연기획자문역은 더 체류할 의도를 제시하였으나, 예산을 고려하여 6회로 정하였음

○ 이사 서00

진은숙과 마이클 파인의 경우 3회 방문은 부족하다고 생각됨

○ 이사장 함00

다양한 의견에 대해 참고하시길 바라며,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제183초 임원추천위원회 의원 추천(안) 토의]

○ 이사장 함00

지난번 메일로 추천자 요청을 보내드린 바와 같이, 이사님들께서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분들의 추천을 바람

○ 대표이사 강00

지난번에는 정00 이사님이 위원을 역임하셨음

○ 이사 광00

추천요청을 확인하고 단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에 부탁을 하여 추천을 받았음. 범무범인 김00의 이00 변호사님과 범무범인 우00의 위00 대표 변호사님 두 분을 추천받았으며, 위00 변호사님을 추천함

○ 이사 문00

이 분이 노사협의회 자문위원인가?

○ 이사 광00

노사협의회를 통해 추천받은 두 분 중에 한분을 추천함

○ 이사장 허00

금일 다 결정을 하는 것인가?

○ 경영본부장 홍00

이사장, 대표이사 두 분에게 위임을 하고 논의해서 추천을 한 선례가 있음

○ 이사 서00

그렇다면 이사 중 한 분이 포함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사장 함00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이라면 한 분정도 포함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사 박00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사 한분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찬성함

○ 이사 강00

이번에 임원으로 채용되는 분은 이번 이사회 임기의 남은 잔여임기인건가?

○ 이사 서00

잔여임기가 아닌 신규3년 새로운 임기임. 이사회의 임기가 모두 동일하면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임원별 임기는 상이한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이사 문00

이사회에 한분 포함하고, 다른 한분은 이사장님과 대표님에게 위임하는 것을 제안함

○ 이사 함00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이사님 한분을 정하는 것을 추천함

○ 이사 서00

강00 이사를 추천함

○ 이사장 함00

그렇다면 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 이사 중에서는 강00 이사님을 위원으로 의결하며, 다른 한분은 위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 이사 일동

네. 찬성합니다.

○ 이사장 함00

그렇다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강00이사님을 포함하고, 한분은 대표이사와 이사장에게 위임하겠음. 그럼 이상으로 제59차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음.